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1. 28

서정훈 연구위원

***jh@hanafn.com

02.729.019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21-11/25)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11.21일 1,354.7(+14.4): 12월 75bp 인상 베타 확대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 보스턴 연은 총재 매파적 발언에 상승 출발 후, 중시 낙폭 확대 및 매수 심리 확대에 정오경 1356.6원까지 빠르게 레벨 높임. 이후 위안 환율 상단 막히며 1350원대 중반 등락 이어감

11.22일 1,356.6(+1.9): 중국발 위험회피에 상승. 중국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위험회피 속 1361원에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매수세 유입에 1362.9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네고 유입 및 역외 달러 반락에 1350.5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위안 환율 상승에 연동해 낙폭 반납.

11.23일 1,351.8(-4.8): 달러 기술적 반락 속 하락. 장 초반 간밤 달러 약세 소화하며 1346.9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애플 공장 시위 발생 등 중국 코로나 확산 관련 소식 속 위안 환율 상승에 연동해 1355.3원까지 낙폭 축소함. 장 후반 중시 외인 순매수 및 네고 유입에 재차 하락.

11.24일 1,328.2(-23.6): 연준 속도조절론 확대 속 하락. 간밤 1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 약세에 1337.5원에 하락 출발 후 금통위 대기 속 1340원 부근 지지력 나타냄. 이후 글로벌 위험 선호 및 달러 추가 약세에 레벨 낮춘 후, 위안 환율 상승 및 결제 유입에 낙폭 일부 반납함.

11.25일 1,323.7(-4.5): FOMC 회의록 공개 후 약달러 계속되며 하락. 추수감사절 연휴 속 이벤트 부재에 보험권 출발 후 장 초반 위안화 약세에 1333.8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1320원대 후반 등락 이어가다 역외 달러 하락에 저점 낮쳤으나 하단 막힌 위안 환율과 결제 수요 등에 낙폭 줄임.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보스턴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12월 75bp 인상 전망 확대되자 달러 강세에 상승. 보스턴 연은 총재는 최근 데이터로 자신의 견해가 영향 받지 않았고 12월 75bp 인상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힘. 주초 중국 내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달러-원은 추가 상승함.
- 주 중반, 주초 강달러 되돌리며 달러-원은 기술적 반락. 위험 선호 회복에 따른 외인 순매수 또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주 후반, 1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 속도조절 기대감에 따른 약달러 속 달러-원은 추가 하락. 의사록은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남.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미국 경제지표 발표 등에서 연준 속도조절 기대감에 따른 약달러에 하락 시도 예상되나,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 발언, 중국 코로나 재확산 및 시위 등에 달러 지지력 유지되며 변동성 나타낼 전망. 금주 PCE 물가지표, 고용 지표 발표 예정된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하락 확인과 고용증가 둔화는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키우며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듯.
- 다만 파월의장 연설은 다소 매파적일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위험 선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금주 확인될 11월 무역적자 또한 여전히 매수 우위인 수급 환경 확인시키며 환율에 지지력 제공할 듯. 중국 코로나 재확산세와 봉쇄에 따른 시위 심화 또한 위안화 약세로 이어져 원화의 동반 약세 재료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2.00	1,362.90	1,319.40	1,323.70	-16.60

예상거래범위

1,315원 ~ 1,3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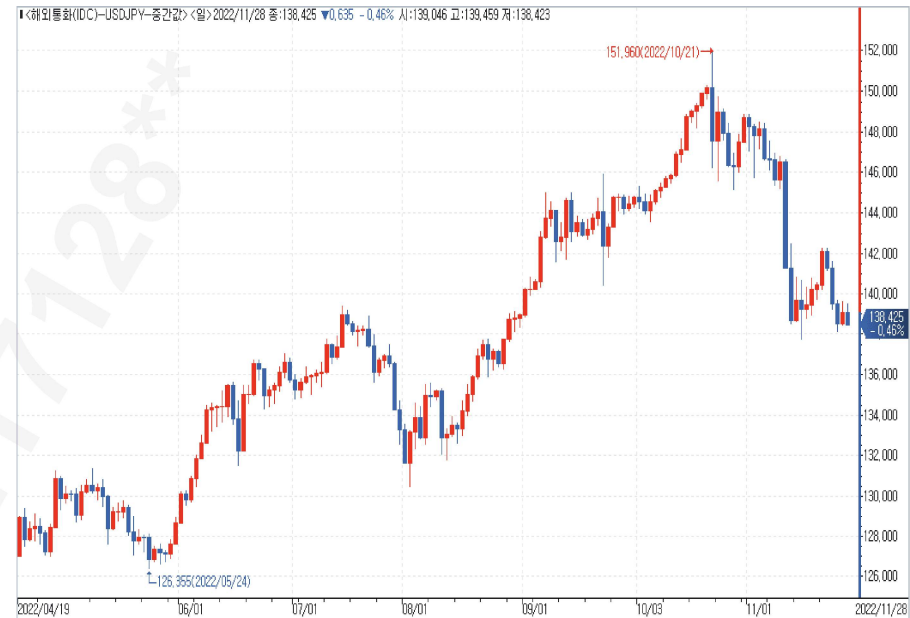
엔·유로화 동향 (11/21~11/25)



유로화 동향

- 주초,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도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후퇴 속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 등으로 유로 약세 출발. 이어 연준내 주요 인사들간 향후 방향성이 대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비둘기적 견해 제시 등으로 달러의 약세 전환 속 유로는 강세 전환하는 모습
- 중반 들어, 미 11월 의사록에서 상당수 참가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진단했다는 의견 제시와 미국 PMI지표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 지속
- 후반 들어, 연준 의사록 공개에 대한 영향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ECB 의사록 역시 상대적으로 위원들의 매파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있었음이 제시됨에 따라 유로 강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326	1.0448	1.0222	1.0409	+0.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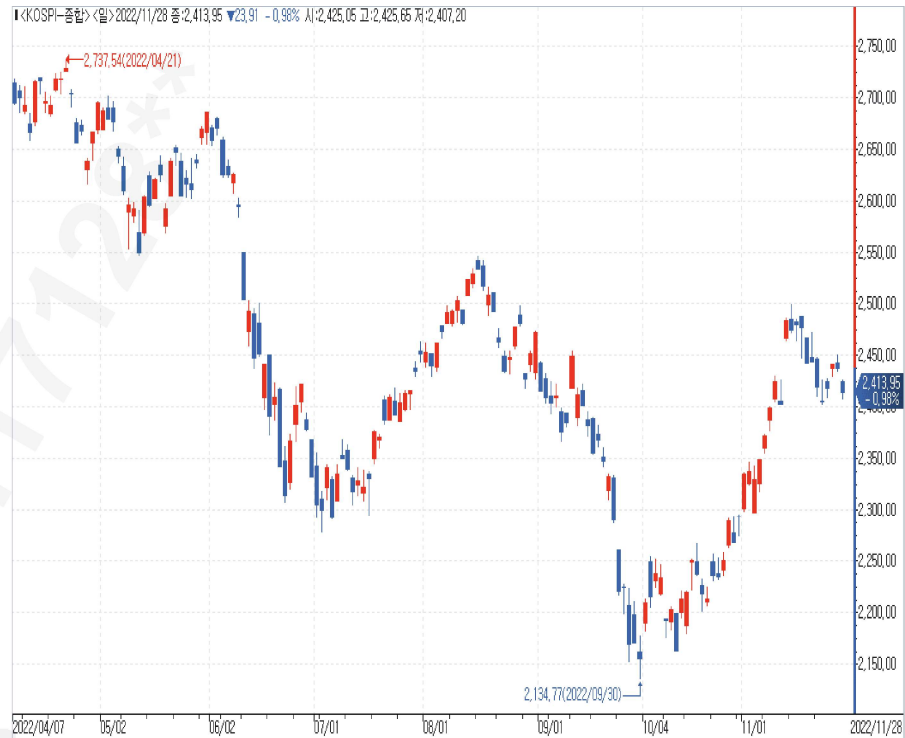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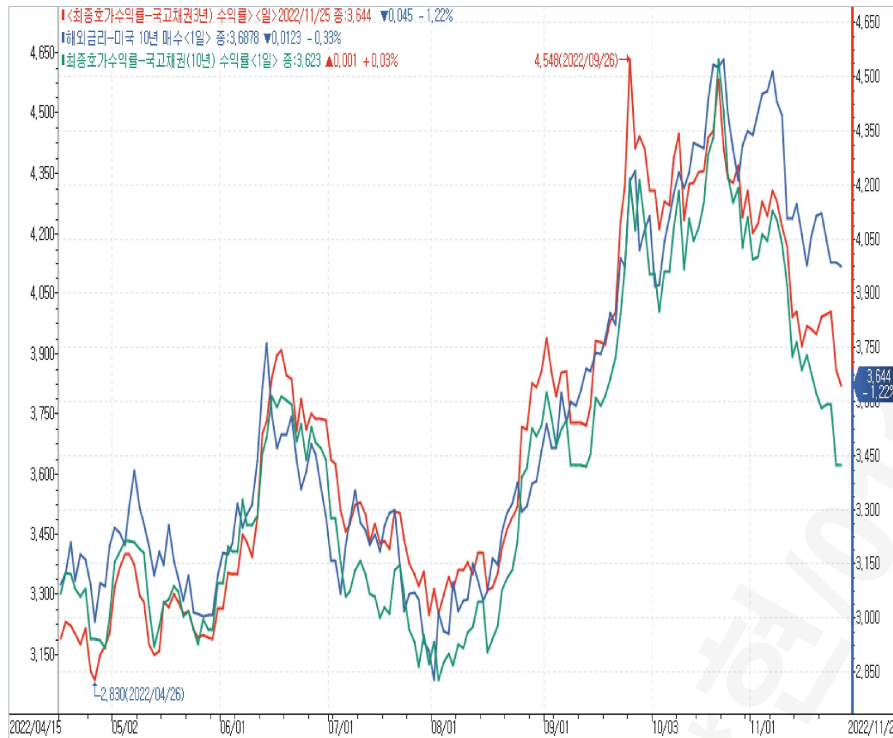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와 연준의 초매파 위원의 금리 상단 상향 언급 등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에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연준내 비둘기적 스탠스 감지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으로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전환
- 중반 들어, 미 11월 의사록에서의 기존 매파 스탠스에 대비되는 상대적 비둘기적 성향 제시 등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등으로 엔화의 강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일본내 물가 상승률이 2%를 계속 웃도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조만간 BOJ도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확산. 이에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제한적이지만 엔화의 강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한주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0.4	142.2	138.0	139.1	-1.34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21~11/25)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국고채 금리 단기 구간은 연준의 매파 성향을 반영하며 상승한 반면, 장기 구간은 중국 코로나 불확실성에 하락, 한달 만에 다시 역전 흐름 보이며 출발. 이어 금통위 대기와 전일 금리 방향성의 되돌림 속에 장기 구간 중심 상승
- 중반 들어, 전일 미 국채 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출발 후, 호주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에 상승 전환했지만, 경기 우려 부각에 재차 하락 흐름
-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에서 25bp 스텝으로 하향 금리 결정한 가운데 내년 성장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과 한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예상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세 지속. 주 후반, 전일 금통위 결과에 대한 최종 금리 인상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장의 안도 속에 단기 구간 위주로 하락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 인사들의 긴축 관련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긴축 경계심 강화 속에 하락 출발. 이어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속에 연준이 10월 CPI 발표 후 긴축 강도를 조절할 것이란 시장 기대가 매파적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줄어들며 하락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소매기업들의 실적 호조 속에 금리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재차 확대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 11월 연준의사록에서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여지에 대한 시사 등으로 뉴욕증시 등 글로벌 증시에 위험 선호가 확대되며 상승 지속. 이어 주 후반 뉴욕 증시 추수감사절 휴장, 국내 증시 방향성 재료 소진 속에 실물경기의 하강 국면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폭 하락하며 마감